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446 (우리는 주의 사랑을)	218 (주여 당신 종이 여기)	219 (주여 몸과 맘)	451 (주께 나아가리다)

제 1독서 | 집회서 3,17-18.20.28-29

화답송 |

◎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집을 마련하셨나이다.

○ (좌) 의인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리라. 하느님 앞에 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너희는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주님이시다. ◎

○ (우)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외로운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사로잡힌 이들을 행복으로 이끄시네. ◎

○ (좌) 하느님, 당신은 넉넉한 비를 뿌리시어, 메말랐던 상속의 땅을 일구셨나이다. 당신 백성이 그곳에 살고 있나이다.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마련하셨나이다. ◎

제 2독서 | 히브리서 12,18-19.22-24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14,1.7-14

오늘의 묵상 |

오늘 독서와 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겸손과 낮아짐”입니다. 집회서는 우리에게 “큰사람이 될수록 자신을 낮추라.”고 권고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마음이며,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은총 가득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초대받았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초대된 하느님 나라의 잔치는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느님 은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에서 혼인 잔치 비유를 통해, 높은 자리를 탐내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높여주시는 자리는 오직 겸손한 이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의 자리를 낮추고 겸손과 사랑으로 이웃을 대할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총을 체험할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7 예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8 "누가 너를 혼인 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9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10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 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함께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11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12 예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13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14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 그레고리오 성가로 부르는 전례성가 (1) >

Kyrie VIII.

(De Angelis)

1. 그레고리안 성가란 무엇인가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단선율 전례성가로서, 주로 로마 전례 양식때 사용되는 무반주의 성가입니다. 가사는 대부분 성경의 내용, 특히 '시편'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라틴어로 되어있습니다. 그레고리오 성가는 음정과 리듬보다는 가사 전달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는 가사를 더욱 강하게 잘 표현하기 위하여 너무 화려하거나, 복잡한 선율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성가를 부름으로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고 목상하게 되는 '노래로 부르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악보가 있나요?

사실 그레고리오 성가는 악보를 통해 눈으로 익혀 배우는 노래가 아니라 스승의 입을 통해 제자들이 직접 따라 부르면서 귀와 입으로 익히는 구전(口傳)의 방식을 통하여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가의 선율이 변화가 복잡해졌고, 노래를 부를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음을 따로 표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발전하여 결국 음의 높낮이를 정해줄 수 있는 일종의 약속된 선과 음표 사용이 11세기~13세기에 걸쳐서 발전되었습니다. 그레고리안 성가의 기보법은 네우마(Neuma)라고 하는데, 그리스에서 유래된 말로서 '기호, 신호, 또는 암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의(Dogma)’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초대 신앙인들의 삶을 따라) - (2)

기원후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로마의 그리스도교 박해는 중단됩니다.

이 시기 열정적인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주변 사회와 점점 접촉해 나가며 일정한 인정과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존경의 시선이 서서히 퍼져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정치적 전략이나 세속 권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 전체로 복음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지는 않았지만, 세례를 통해 얻은 새로운 삶을 드러내고, 평화를 전하며,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고, 동시대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 곧 ‘살아 있는 호교론’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국교 ‘그리스도교’

서기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테살로니카 칙령을 반포하여 그리스도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준이자 내면의 질서를 세우는 힘으로 작용하였을 뿐, 세상을 장악하려는 정치 체제나 지배 이념이 되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종교가 국교로 지정되면, 국가는 종교를 보호하고 종교는 국가의 이념적 도구가 되어 사회정치를 통합시키는 원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그러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체제화하거나 권력화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을 하느님 나라의 실현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까지나 하느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삶 안에서 구현하려는 신앙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순교의 시대로부터 공인의 시대로 전환된 것은 단순히 정치적 안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전환은 신앙 고백의 정식화, 즉 381년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의 제정으로 이어진 신학적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신앙은 더 이상 소수의 신자들이 목숨을 걸고 은밀히 간직해야 하는 고백에 머물지 않고, 교회 전체가 공적으로 선포해야 하는 공동체의 신앙 언어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 전환은 단지 표현 형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본질적으로 성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삶의 경험에서 교의가 형성되고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흐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의 경험 → 교의 형성 → 신앙 고백

삶에서 출발한 신앙 고백

신앙은 삶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는 경험이 먼저 있었고, 그 신앙적 체험을 바탕으로 교회는 신앙을 분별하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언어와 형식을 교의(dogma)로 선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의는 신앙 고백(Credo)의 형태로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선포하는 공적인 신앙 선언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 안에는 성인 교부들의 삶과 가르침, 순교자들의 헌신,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신앙적 수용이 깊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대 교회가 보여 준 교의 형성의 과정은 단순한 이론적 전개가 아니라, 신앙의 삶에서 출발하여 공동체의 고백으로 이어진 살아 있는 전통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Fr. 전인걸 요한 보스코

공지 사항

1. 여정 '시즌 5' 모임 안내

- 첫 모임: 9월 3일(수), 저녁 7시

(줌 온라인 -묵주기도 회의실 ID와 PW 사용하여 참여)

* 모임을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다음 영상을 Youtube에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디나와 함께한 4년"

영상 검색어: [KBS스페셜 #3] 평생을 '죽음의 현장'에서 보낸 수녀님에게 죽음에 대해 묻습니다



(위 QR 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 여정 모임 때 사용할 영상 목록입니다.

- a. '바베트의 만찬(Babette's Feast)' 감독: 가브리엘 액셀
- b. 세상 끝의 집 (카르투시오 봉쇄수도원) -다큐 (free)
- c. '침묵 (Silence)', 감독: 마틴 스코세이지

| 미사 참례자 수 |

8월 17일	유아·청소년: 20명	성인: 50명
8월 24일	유아·청소년: 19명	성인: 57명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퀸비얀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8월 31일)	요한반
다음주 (9월 7일)	루카반

2. 아이들 고해성사 교리 안내

* 일시: 9월 7일 & 14일(주일), 1:45PM~2:30PM

* 장소: 아란다 교육관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2장 3-5절>

| 봉헌금 & 교무금 | (8월 23일 ~ 8월 29일)

봉헌금	\$ 316.95			
교무금	\$ 740			
구민식	권묘순	김태린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지영	장호훈	전인철	정은영
조성희	주정자	한상지	허준	

| 기도 지향 |

- * 임양녀 세실리아 자매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 * 한영길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 * 강백일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 * 이근화 프란치스코 형제님 건강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